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 7 | 제149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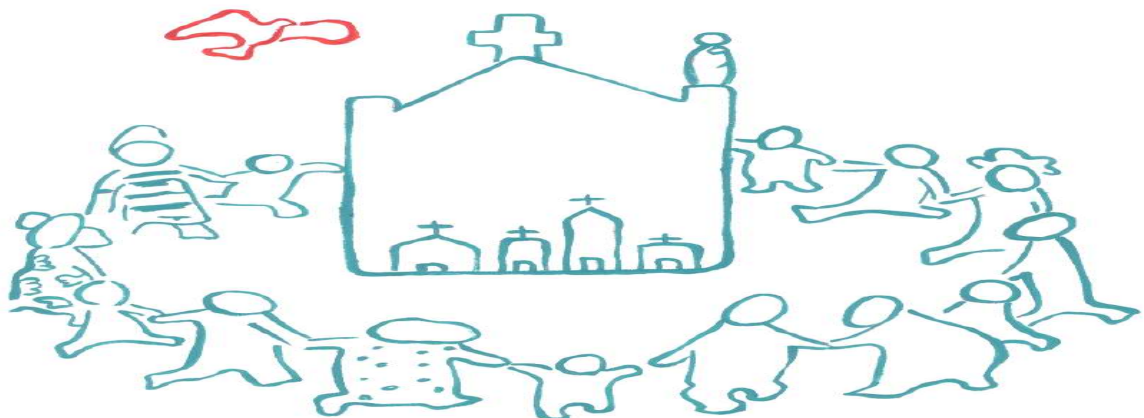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연중 제15주일 (7월 11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13)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림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 파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가난을 키우고, 또 온전히 자신을 비울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가늠키 어려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7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9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 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11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합니까?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마르 6,9)

필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소유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족하면 청하고 없으면 매달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악한 영에 대한 권한'을 주십니다. 악령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힘'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힘에 이끌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이고, 선교요 전교입니다. 복음 선포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다른 것은 준비 못해도 '이 힘'은 지녀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제도'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갖추고 많은 이가 동참하면 '힘'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가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나눔기

연중 제16주일 (7월 18일)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마르 6,30-34)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

그림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선포로 바쁜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을 읽으십니다. 또한 많은 군중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아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은 가엾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던져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6번 "목자를 따라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3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3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31)

얼마나 자주 홀로 성당에서, 감실 앞에서 머물러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마르 6,34)

모자라고 부족한 이웃을 인간적 사고로 쉽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쉬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남들은 일하는데 쉬어서 되겠는가.' 쉽게 이런 생각에 젖습니다. 그러니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 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도 모른 채 삽니다. 열정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하면 탈이 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상시 여유를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여유는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진정한 여유가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설정도 못한 채 바쁘게만 살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이 어찌면 은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멈추고 돌아보는 기회와 계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느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인생입니다. 사는 것에 매달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6번 "목자를 따라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코로나를 넘어 더 단단해질 우리 소공동체

- 망경동 본당 구역분과 전수연 대 데레사 -

망진산을 마주하고 아담하게 자리 잡은 망경동 본당은 칠암동 본당에서 분리되어 1998년 6월 25일에 첫 미사를 봉헌하였고, 올해 2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망경동본당 소공동체는 5개 구역 1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1개 반이 아파트단지에 속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사를 가는 교우들이 늘어나 구역 외 교우들의 비중이 커져, 그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역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역 특성상 매월 모임이 어려운 관계로 분기마다 교중미사 후 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느 본당이나 그러하듯 저희 본당에도 오랫동안 반장을 맡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적지 않은 연세와 바쁜 일상에도 소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소공동체장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복음 나누기 시 신앙의 체험을 풀어내시는 모습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고 성찰하도록 합니다. 또한 반장님들은 반모임의 활성화와 유대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반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반원을 가족처럼 보살피시고, 음식봉사도 하시며, 반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반장님들께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에 반장님들과 1년에 2번, 상반기에는 영성을 위한 피정, 하반기에는 성지순례 겸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엄습한 코로나로 인해 각 구역에서 주관하던 연 3회 점심나누기,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던 부활절·성탄절 점심나누기가 중단되었고, 교중 미사 후 성당 뜰에서 담소를 나누며 마시던 차 봉사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정되었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관계가 소원해지니 코로나가 끝난 후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목회에서 결정된 화상(Zoom)을 통한 비대면 미사, 인원에 제한을 둔 대면미사에 관한 공지를 소공동체 단톡방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신부님께서 방역지침 준수에 병자영성체를 신청하는 가정에 방문하고 계시어 제가 동행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과 만남이 제한되었지만 하느님과의 만남은 더욱 깊고 간절해졌으니, 코로나가 끝날 즈음이면 우리 망경동 본당 공동체의 믿음은 더 깊고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1.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남

1) 영혼의 양식

하느님께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계시 현장, 2항)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허기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은 무엇보다 성경으로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요한 1,14)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자리를 비워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과 한 몸이 되고, 어떠한 유혹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청하는 자세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방법과 자세를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는 말씀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려는 것으로, 그 "첫 단계는 친밀함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열기입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참다운 영적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청은 우리를 단순한 방관자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바른 몸짓과 바른 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한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경청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성숙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향한 열망을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171항)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는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와 소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복음화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행하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음화 되지 않는다면 복음화하지 못합니다."(주님의 말씀, 174항)

소공동체 교육 교재 『한마음 한 뜻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